





서가풍경

사람을 읽듯 책을 만나는 곳

한국종합예술학교 이강숙 총장의 서가

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은 이강숙 총장을 교장선생님이라 불렀다. 그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은 학생들과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할 때다. 그의 방은 서가와 피아노, 악보와 CD, 책과 노트북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. 그 사이사이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배어 있다. 음악교육 관련서가 많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책의 수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서도 그 관심의 한 자락을 엿볼 수 있다.

문학병이 심했던 젊은 시절부터 이 총장은 김우창·유종호·백낙청·김현·이청준 등 문인들과 교류가 많았다. 이제는 모두들 바빠 서가에 꽂힌 옛 책에서나 이들을 만난다.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으면 이총장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한다. 그 대답이 부러워 한참동안 아무말 없이 앉아 있는다.

사람을 읽듯이 책을 만나는 일도 있고 책을 읽듯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다. 책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책을 끌어내는, 이런저런 일. 그런 일들이 모여 몇 그루 느티나무 같은 서가가 이뤄졌다. 학교를 만드는 일, 서가를 만드는 일, 삶을 만드는 일. 그게 다 같은 얘기라는 말인지도 모른다.

- 김연수 기자

